

## 마감이냐, 완성이냐

마태복음 2:13-21

어느덧 12월을 맞았습니다. 올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성경에 보면 시간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크로노스**, 의미있는 시간-**카이로스**, 완성하는 시간-**플레루**입니다. 지금 내가 보내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12월도 지나가는데 나의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입니까, 의미 있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완성하는 시간입니까?

어떻게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고, 마침내 완성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마 2:13-14) 사실 이 말씀은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는 자기가 정혼한 마리아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오신다고 듣고(마 1:20-21) 어려운 상황 가운데 순종하며 마리아를 받아들였는데, 그 구원자가 애굽으로 피신해야 한다는 말씀이 쉽게 이해될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해가 안 되어도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흘러갈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카이로스)으로 만들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시간(플레루)으로 만든 것입니다. 요셉의 순종이 만든 의미는 예수님이 애굽에서 지내시므로 그 옛날 모세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 당하던 일에 동참하셨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로 돌아오신 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다는 구원의 그림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마 2:15) 이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요즘 모든 차에는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잘 따라야 도착지에 완전히 이르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에 무엇인가 완성하려면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시다가 마침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신문사에 가면 원고 마감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서둘러 마감하기 때문에 뭔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감시간은 시간적으로 무엇인가 끝을 내었지만 완성한 것은 아닙니다. 완성은 내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후회나 아쉬움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이 이렇게 빨리 왔듯이 내게 주어진 인생의 마지막도 빠르게 이를 것입니다.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내지만 마십시오.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 있게 바꾸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그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 같이 말씀에 순종하면 마감 인생이 아닌 완성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우 모두가 마감의 인생이 아니라 완성의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 나눔의 시간 ○

1. 성경에 나오는 시간의 세 종류는 무엇인가요?
2. 요셉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3. 마감과 완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4. 내가 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완성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